

외국 위조지폐



김 영 태 / 위조지폐 감별역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수 많은 직업이 탄생하고 또 소멸한다. 과거에는 중요하던 직업이 최근에는 불필요한 직업으로 변화되는 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직업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직종 중 하나가 내가 가진 외국 위조지폐 감정사라는 특이한 직업인 듯 싶다. 내가 직업을 말하면 되묻는 이들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화의 빠른 진전으로 외화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과 아울러 외국 위조지폐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안하고 감시하기 위해 새롭게 나타난 직업이 외국 위조지폐 감정사라고 하겠다. 외국 위조지폐 감정사가 하는 일이란 단순히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 뿐만 아니라 은행 등을 통하여 환전이 가능한 100 여 개국 통화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나도, 몇 년 전 위조지폐 감정업무에 발령을 받고 전혀 생소한 분야라 무엇을 어디부터 업무에

임하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다행히 부서에는 전임자인 선배가 계셨기에 위조지폐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하루 아침에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위조지폐에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다녔고, 언론사를 비롯하여 수사기관 그리고 직장의 배

려로 외국출장 등을 통해 자료들을 하나, 둘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으나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나날이 늘어가는 자료를 볼 때마다 흐뭇함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때였다. 현재는 그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조지폐를 가려내는데 적극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위조지폐 전시장운영, 전국순회 전시회, 금융기관에서의 교육실시, 홈페이지(www.keb.pe.kr)운영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적발되는 위조지폐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눈, 귀, 코, 입, 손 등의 오감이 총 동원되어야만 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기에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적발되는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주로 미국달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달러 선호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 통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본다.

최소한 내가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혹은 위조지폐가 아닌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직 하다. **www.keb.pe.kr**